



Affordable  
Art Fair

# ART, Your Choice

KIDARI GALLERY & KIART Online

2016. 9. 9 - 9. 11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2관 Booth No. H-09

**KIDARI GALLERY**

Tuk'no



wild aura 2016 eagle 001 / 90.9 x 70.7 cm / Oil on Canvas / 2016

### 탁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중퇴

개인전 13회, 그룹전 다수

저서  
2008 '볼 수 있으면 그릴 수 있다'

늑대를 그리는 화가로 잘 알려진 탁노 작가는 야생의 기운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추상적 표현주의 화가이다.

간결하고, 강한 터치와 색감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탁노 작가는 야생의 기질을 가진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능적 야성과 자유로움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늑대 뿐만 아니라 독수리, 야생마, 황소 등... 자연의 야성을 분출하는 강렬한 모습을 자신만의 화법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최근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 13번째 개인전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아트페어에서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 세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uh Seung-eun



The golden egg / 65.1 x 65.1 cm / Eastern Vissercolor, Acrylic on Hanji / 2016

### 서승은

계명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개인전 12회, 그룹전 50여회

수상  
2014 신라미술대전 특별상  
한국문화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세계미술대전 특선

서승은 작가는 한국화 화가로서 한지의 특성을 살려낸 특유의 채색 방식과 함께 세계 최초로 '다육식물 소녀'라는 창의적인 소재를 통해서 아세적 화풍으로 자신만의 초현실주의적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육식물들은 내적 강인함과 고귀함을 상징하고, 가녀린 소녀의 모습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외로움과 나약함을 밖으로 표출시킨 시각적인 형태물이다.

작가가 이런 다육식물의 내적 강인함을 가녀린 소녀에게 거머쥔 것은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삶에 지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작품들이 크게 이슈가 되어 작품 예세어질 출판을 계약 했다.



Score of Happiness / 72.7 X 93.9 cm / Oil on Canvas / 2016

### Kang Jung-ju

#### 강정주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개인전 16회, 그룹전 60여회

수상  
광복도전, 대구시경, 해일대전, 신라대전 특/입선 12회

강정주 작가는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나이트 작업을 해오고 있다. 다른 화법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런 작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꽃을 소재로 한 자신의 작품에 생명감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영감을 쏟아붓는 그녀의 손끝은 단순히 아름다운 꽃을 표현 하고자 함이 아닌,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전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향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집안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화사하게 바꿔줄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행복의 향기를 가득 채워 줄 것이다.



그린이비 / 40.9 X 53.0 cm / Oil on Canvas / 2016

### Yang Jong-yong

#### 양종용

김원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김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개인전 5회, 그룹전 20여회

수상  
2011 강원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대구상 부문 입선  
2010 단원미술대전 특선  
강원미술대전 우수상

하얀 직면기에 녹색 이면을 그려넣은 인상적인 작품으로 주목 받은 양종용 작가는 여러 종류의 하얀 얼굴물에 이면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구성과 색감은 현대적인 세련미와 함께 초현실주의적 신비로움도 갖추고 있다. 세세한 붓치로 꼼꼼하게 표현해내는 녹색 이면은 민공물과 다른 자연 생명체의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자 하는 소재이다. 이렇듯 그의 작품에서는 인공물과 자연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화합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오렌지 마르페에서 서빙수 부스시장이 활력형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66(9.7) / 45.5 X 66.1 cm / Oil on Canvas / 2016

### Park Hong-mi

#### 박홍미

울산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

개인전 4회, 그룹전 다수

박홍미 작가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형태로 평범함이 되어버린 익숙한 사과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어릴때 부터 통그렇다고 생각한 시과는 사실, 울퉁불퉁 저마다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미지 보다 훨씬 더 많은 매력과 상징성을 지녔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작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모습을 빨간 사과의 다양한 형태와 색깔, 색깔으로 여러 감성을 담은 '바라보기'를 화폭 위에 표현하고 있다. 따뜻한 느낌의 동화같은 배경에 놓여져 있는 빨간 사과가 관객의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관객의 마음 속으로 자신의 감정을 건네주는 힘을 느낄 수 있다. 빨간 사과 역시 누군가의 바라보기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쩌면, 바라보기는 아름다운 소문의 시작 일지도 모른다.



2016. 3.30. 5.7 48.0 X 53.0cm / Acrylic on Canvas / 2016

### Chung Hyun-hee

#### 정현희

한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 2회, 그룹전 및 아트페어 38회

수상  
관학현대미술대전 입선  
크림아트 fair 공모전 크리에이티브 일러스트 부문 최우수상

정현희 작가의 작품에는 일정한 형식과 틀이 없다. 사람, 동물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기하학적인 형태와 표현주의가 엮여있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정현희 작가는 "인상적인 부분을 느낀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그대로 표현할 뿐" 이라고 말한다. 작품 속 인물과 동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재료의 종류나 그것을 사용하는 기법에서도 자유로운 방식을 보인다. 일방언물과는 다른 시각으로 눈도 코도 벼룩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동물과 사람, 또는 사람들간의 관계를 주로 보여주고 있다.



feeding51 / 72.7 x 60.6 cm / 2016 / 광복동에 피그들 / 2016

## Han Choong-seok

### 한충석

신라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재학

개인전 10회, 그룹전 100여회

수상  
2014 85급유공로 청년작가 용면미술 공모전 입상

한충석 작가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생이 분능에 대한 이마  
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이 이미지를 차용하며 그림을 그리  
는데, 무언이여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대중에게 소통과  
활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가 연동아내는 형태는 간결하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단순화  
시킨 독특한 캐릭터를 부드럽고 편안한 색감으로 채운 감각적인  
위에 올려 놓는다.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많은  
것들을 머리에서 내려놓고 영혼함을 느끼게 해주는 특징이 있  
다.

2016 광주어연남대 버스에는 그의 작품 속 캐릭터들이 크게  
그려졌고, 학교 교과서에도 작가의 작품이 소개 되게 되었다.



Buffy forest- bungee jump / 40.0 cm Diameter / Oil on Canvas / 2016

## Noh Hye-young

### 노혜영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대구대학교 미술디자인학과 일반대학원 재학

개인전 4회, 그룹전 20여회

노혜영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숲은 자연현물의 상징적 표현  
이며, 내적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이상적 세계이다. 이 공간은  
지친 현대인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의 품과 같은 장소이자 현대인들의 매마른 감성을 순화시  
키고 정통적 요소를 재방사시키는 가상적 공간인 것이다.  
그 위에 그려내는 다양한 소재들은 인간의 순수한 욕구를 반  
영 시키기 위해 작가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Love Shelter / 30.5 x 30.5 cm / Acrylic on canvas / 2016

## MaryAnn Loo

### 마리안 루

싱가폴 아티스트

개인전 2회, 그룹전 20여회

수상  
Light Space & Time Online Gallery Cityscapes 2015

싱가폴에서는 'PenguinGirl' 또는 '멜빈 아티스트'로  
알려진 마리안 루는 하늘 위 구름 나라에서 살고있는  
황색 행운을 소재로 하여 시리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날지 못하는 행운들이 하늘 위 구름 세상에서 행복하  
게 생활하는 모습들은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런 작품들이 마리안  
루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그녀의 멜빈 시리즈 작품 배경은 남극의 바다와 얼음  
위 겹치지만, 사실은 바다 같은 느낌의 구름 위에 서는  
행운의 모습이기때 동화적인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날  
지 못하는 새들의 영롱한 꽃은 하늘을 날며 하늘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어떤 것도  
미룰 수 있다는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  
여 주고 있는 것이다.

## KIDARI GUIDE

- # 행사명 :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2016
- # 장 소 :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 기 간 : 2016년 9월 9일(금) ~ 11일(일)
- # 키다리 갤러리 부스 : 알림터 2관 H-09

- # 일반 관람 시간
- 9 / 9 금요일 12pm - 6pm
- 10 토요일 11am - 7pm
- 11 일요일 11am - 6pm

- # 특별 관람 시간 (초대권 소지자)
- 9/8 목요일 - Private View 5pm - 9pm
- 9/9 금요일 - Special Evening 6:30pm - 9pm



내 집 처럼 편안한 갤러리 - 키다리 갤러리

모든 종류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부담 없이 작품을 컬렉팅 하세요.





# KIDARI GALLERY

Booth No. H-09

Tuk'no

Suh Seung-eun

Kang Jung-ju

Han Choong-seok

Yang Jong-yong

Noh Hye-young

Pak Hong-mi

Chung Hyun-hee

MaryAnn Loo

*Hi Seoul*

**We are artists.  
We are the best.**



KIDARI GALLERY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2길 42-8 Tel.070-7566-5995 Fax.070-8223-5664

[www.kidarigallery.com](http://www.kidarigallery.com)